

2008년 5월 24일 지방직 9급 문제와 해설(A책형)

2008년 ‘수탁제’ 첫 시험에 부쳐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또 한 번의
희비(喜悲)가 엇갈릴 시간만이 남았다.

매번 시험이 끝나고 나면 있는 이러한
풍경들은 선생인 나도 그럴지만 정작 당사자인
수험생도 이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수험가의 또 하나의 모습인 것 같아 어찌 좀
아이러니 하기도 하다.^

암튼, ‘수탁제’ 첫 시험 치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수능’처럼....

중앙인사위원회가 문제를 만들어 한 날 한
시에 보게 된 공무원시험!

문제가 고급스러워지고, 변별력을 갖춘
문제들이 나올 거라 기대했었다. 문제는 많이
달라졌다. 하지만, ‘국가직’처럼 고급스럽고(?)
난이도 있는 시험은 아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시류(時流)가 ‘생활국어’이다 보니
자연스레 ‘생활국어’쪽으로 많이 출제된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나의 강의도 분명 거기에 맞춰 이루어졌기에
‘국가직’이었든, 이번 지방직 ‘수탁제’
문제이었건 간에 반 이상이 거기에서 나왔다.

또한, 내가 그렇게 강조했던....
비문학의 ‘지문을 보는 힘(비문학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키우는 공부 역시 두서너
차례의 시험에서 적용되어 나왔다.

국가직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번 ‘수탁제’
문제도 필자의 주장, 이야기의 중심내용,
단락의 순서를 잡는 문제 등으로 전체적인
틀을 그리는 시험이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이야기이다.(물론 어휘력은 어제든
나오는 문제이지만)

문학의 ‘나무를 보는 공부’가 아닌 숲을 보는
공부’로 출제되었다.

문학은 이제 옛날 고등학교의 ‘중간·기말
고사’가 아니다.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으로 상식에 접근하는 그
더 이상의 문제는 그렇게 많이 요구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작품론’이 아니라 ‘작가론’이
대세라는 이야기이다.

더더욱 다행한 것은 이제 작품에 제목과
작가가 주어진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더욱 더 쉽게 문제를 풀어 낼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작가론으로 공부를 했다면
말이다. 더욱이 문학의 문항수가 많이
줄어가는 추세라는 사실은 문학을 더욱
‘작가론’으로 공부해야할 방증이 되는 것이다.

아무튼, 첫 ‘수탁제’시험은 예상만큼 어렵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변별력이 전혀 없는 문제도
아니었다.

지문을 독해해 가는 ‘시간의 안배’만 기른다면
앞으로 어찌면 수험생들이 계획하는 것보다
빠르게 합격증을 받을지도 모를 일이다.

덧붙여 말하건대, 수탁제의 리듬은 계속
이렇게 이어지리라 생각한다, 단지, 수탁제에
동참하지 않는 지역(지방)은 들쭉날쭉 하는
(문학이 강세가 되는 등) 출제가 예상되지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강의했던 내 국어
강의의 방향이 이제는 기정사실로 증명되었듯이
국어는 전체적으로 어휘력을 보강하는 힘을
키우고, 지문을 바라보는 힘과, 지문을
재구성하는 방법을 키우고, 문학은 작품
하나하나를 따질 것이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는
힘을 키워간다면 무난한 ‘국어 문제풀이 방법론’
이라고 생각한다. 언제 또 한 번의 시험 패턴의
변화가 올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아무쪼록, 공부의 방향이 잡혔다면 이제 그
길로 일로매진(一路邁進)하는 일은 나를 아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2008. 5. 26.

비가 오고 있는 그 어느 여름날의 길목에서

에듀윌 국어 김하늬 드림^^

국 어

문 1. 외래어 표기가 모두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 ① 커피숍 - 가운 - 필름 - 앙케이트
- ② 디지털 - 슈퍼마켓 - 휘슬 - 콩트
- ③ 까스 - 케익 - 플롯 - 모차르트
- ④ 브라우스 - 사이다 - 디스켓 - 컨닝

정답 ③

해설 ① 커피숍/앙케트 ② 디지털/콩트
③ 가스/케이크/플롯/모차르트
④ 디스켓/커닝

→ 이론 강의 61강 27분 대 이후에 언급된
부분에서 이 문제의 답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

문 2. 밑줄 친 부분이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
정에 맞는 것은?

- ① 먼저 토의 안건을 회의에 부칩시다.
- ② 재가 무엇이길래 이래라 저래라 하나?
- ③ 윗층의 아이들이 너무 떠든다.
- ④ 여기 자장면 곱빼기 주세요.

정답 ①

해설 ① ‘붙이다’와 ‘부치다’의 구별

‘붙이다’ : 물건과 물건, 사람과
사람을 붙여 놓거나
최대한 밀착시킬 때

‘부치다’ : 그 외(64강 12분대~)

② 무엇이기에

③ 위층.....이론 63강 4분 26초이후~

④ 자장면 곱빼기

→ ②는 아마도 ‘이론’인가

‘문제풀이’가에서....언급한
부분이다.

사랑이 뭐길래가 아니라 사랑이
뭐기에...라고 써야 한다고....

③은 이론 63강 4분 26초이후~
그대로 나온다.

문 3. 한자 성어의 사용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不撓不屈의 의지로 목표 달성을 위해 전진할 것이다.
- ② 그 여자는 성품이 매우 착해서 丹脣皓齒할 만하다.
- ③ 김 대리와 이 대리의 경쟁이 蚌鷸之爭이 되어 박 대리가 승진했다.
- ④ 학문의 길은 쉽지 않아 선인들은 多岐亡羊이라며 탄식했다.

정답 ②

해설 ① 불요불굴 [不撓不屈]

: 한번 먹은 마음이 흔들리거나 굽힘이 없음.

② 단순호치 [丹脣皓齒]

: 붉은 입술과 하얀 치아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여자를 이르는 말.
= 경국지색(傾國之色), 화용월태(花容月態) 등

③ 방홀지쟁 [蚌鷸之爭]

: 도요새가 조개와 다투다가 다 같이 어부에게 잡히고 말았다는 뜻으로, 대립하는 두 세력이 다투다가 결국은 구경하는 다른 사람에게 득을 주는 싸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어부지리(漁父之利)

④ 다기망양 [多岐亡羊]

: 달아난 양을 찾으려 할 때 갈림길이 많아 끝내는 양을 잃는다는 뜻으로, 학문의 길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어서 진리를 얻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 망양지탄(亡羊之歎)

→ ②의 ‘성품’과 ‘아름다움(외모)’와는 거리가 있다.

문 4. 밑줄 친 ㉠~㉣의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계승해야 할 민족 문화의 전통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연암의 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과거의 인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의 ㉢결정이었다는 것은 지극히 중대한 사실이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의 창제 과정에서 이 점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만일, 세종이 ㉣고루한 보수주의적 유학자들에게 한글 창제의 뜻을 굽혔던들, 우리 민족 문화의 최대 걸작품이 햇빛을 못보고 말았을 것이 아니겠는가?

- 이기백, ‘민족문화의 전통과 계승’중에서 -

① ㉠ - 繼承

② ㉡ - 打破

③ ㉢ - 結晶

④ ㉣ - 固陋

정답 ②

해설 ② 타파(打破)

→ 이 문제는 ‘하늬구거2’ ...한문편 ‘비문학 지문으로 독음익히기’의 민족문화의 전통과 계승 원문(p.9 첫단락)에 밑줄 친 부분으로 정확하게 체크되어 있다. 또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문제 ‘07’ 번 경남 기출 문제(p.21)의 변형된 형태이기도 하다....그래서 나왔던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나온다고 한 말을 기억했다면....^^

문 5. 밑줄 친 ㉠과 ㉡의 한자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그 특성상 ㉠가시적이거나, 혹은 ㉡현시적인 분야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 | | ㉠ | ㉡ |
|---|----|----|
| ① | 可示 | 顯示 |
| ② | 可視 | 顯示 |
| ③ | 可示 | 顯視 |
| ④ | 可視 | 顯視 |

정답 ②

해설 ② 가시[可視] : [명사]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시선[視線] : 눈이 가는 길. 또는 눈의 방향.

현시[顯示] : [명사] 나타내 보임.

문 6. 밑줄 친 낱말의 사전적 의미로 옳은 것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저를 그렇게도 못 믿겠다는 겁니까?”
"흐흥... 자고로 오지랖 넓은 사람치고, 자기 앞가림 제대로 하는 경우를 내 아직 보지 못했네. 자네도 마찬가지야.“

- ① 여자들의 치맛자락
- ② 윗도리에 입는 겉옷의 앞자락
- ③ 갓의 테두리
- ④ 발바닥의 오목한 부분

정답 ② ‘관용적 표현’의 기출 문제의 변형

해설 ② 오지랖 [명사] 윗옷이나 윗도리에 입는 겉옷의 앞 자락.

→ ‘오지랖이 넓다’는 말은 관계없는 일에 주제넘게 간섭하는 사람을 비꼬는 말.

문 7. 다음 글의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에 가장 알맞은 것은?

우리네 학교 교육은, 그러니까 시작하던 그 때부터 우리 말과 우리 삶을 떠나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말과 우리 삶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었으므로,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말과 우리 일로부터 멀어지고 육신마저 집과 고향을 멀리 떠나게 마련이었습니다. 제 것을 버리고 무시하고 떠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 교육이 오래도록 걸어온 길이었기에, 학교 교육은 제대로 받은 시간의 길이와 내 것을 버리고 떠나간 마음과 공간의 거리가 늘 비례했습니다. 높은 학교까지 가서 많이 배운 사람은 반드시 고향을 버리고 멀리 떠나가 살아야 마땅한 것으로 여기기도 보니 어찌다가 그런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와 살고자 하면 모두들 업신여겼습니다. 쓸모없이 버려진 사람으로 보고 그의 공부가 헛되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참으로 서글픈 교육의 역사입니다.

- ① 올바른 교육은 언제나 우리 삶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 ② 올바른 교육은 제 것보다 남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중시해야 한다.
- ③ 올바른 교육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고향에 돌아와 봉사해야 한다.
- ④ 올바른 교육은 모름지기 자기 것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정답 ④

문 8. 다음 글의 필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은?

중국에서 역사가 독창적인 학문으로서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은 중국의 위대한 역사학자 사마천(司馬遷)에서부터였다. 사마천은 『사기(史記)』를 써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사(史)’라는 말의 근원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사(史)’는 후한(後漢)의 『사연(辭淵)』에 따르면 기사적서(記事의書), 즉 사건을 기록한 책을 의미하는 것이다. 고대의 역사 문헌인 『상서(尙書)』와 『춘추(春秋)』는 한(漢)나라 때 유교 경전으로 중시되었으나, 이런 경전으로부터 독립시켜 역사를 하나의 독자적인 학문으로 정립한 이는 사마천이었다. 『사기』는 중국 고대로부터 사마천 당시의 한무제에 이르는 약 3,000년의 역사를 인물 중심으로 기록한 통사(通史)이다.

‘역사’란 말은 ‘역(歷)’과 ‘사(史)’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사(史)’자는 입 구(口)와 사람 인(人)을 합친 글자이다. 따라서 이것은 ‘사람이 한 말’ 또는 ‘말을 전하는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사(史)’가 사람이 책을 받쳐 들고 있는 형상을 나타내므로 ‘사물이나 사건을 글로 써서 남기는 인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중국에서의 ‘사(史)’의 개념은 서양에서와 같이 역사적 사실 그 자체와 역사 서술이라는 이중의 뜻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즉 사관(士官)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① 동양의 역사 개념은 서양의 역사 개념보다 다층적이다.
- ② 역사는 결국 사관의 기록일 뿐이다.
- ③ 경전과 사서는 서술 대상 및 서술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 ④ 동양이든 서양이든 사서는 본래 인물을 중심으로 서술된다.

정답 ①

해설 이론강의 43강 30분대 이후 비문학의 구조의 최종 정리를 하면서 필자의 궁극적인 주장은 어디에 어떻게 나오는 지를 3단, 4단 구조로 설명했었는데... 그것만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적용시켜 보는 연습을 했

다면 이런 문제는 충분했다고 본다....^^

문 9. 다음 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박제(剝製)가 되어 버린 천재’를 아시오? 나는 유쾌하오. 이런 때 연애까지가 유쾌하오.

육신이 호느적호느적하도록 피로했을 때만 정신이 은화(銀貨)처럼 맑소. 니코틴이 내 헛배 앓는 뱃속으로 스미면 머릿속에 으레 백지가 준비되는 법이오. 그 위에다 나는 위트와 패러독스를 바둑 포석처럼 늘어놓소. 가공할 상식의 병이오.

나는 또 여인과 생활을 설계하오. 연애 기법에 마저 서먹서먹해진, 지성의 극치를 흘깃 좀 들여다본 일이 있는, 말하자면 일종의 정신 분일자(精神奔逸者) 말이오. 이런 여인의 반(半) - 그것은 온갖 것의 반이오 - 만을 영수(領受)하는 생활을 설계한다는 말이오. 그런 생활 속에 한 발만 들여 놓고 흡사 두 개의 태양처럼 마주 쳐다보면서 깰깰거리는 것이오. 나는 아마 어지간히 인생의 제행(諸行)이 싱거워서 견딜 수가 없게끔 되고 그만둔 모양이오. 굿바이.

굿바이. 그대는 이따금 그대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을 탐식(貪食)하는 아이러니를 실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소. 위트와 패러독스와.....

그대 자신을 위조하는 것도 할 만한 일이오. 그대의 작품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기성품에 의하여 차라리 경편(輕便)하고 고매(高邁)하리라.

19세기는 될 수 있거든 봉쇄하여 버리오. 도스토예프스키 정신이란 자칫하면 낭비인 것 같소. 위고를 불란서의 빵 한 조각이라고는 누가 그랬는지 지언(至言)인 듯싶소. 그러나 인생 혹은 그 모형에 있어서 디테일 때문에 속는다거나 해서야 되겠소? 화(禍)를 보지 마오. 부디 그대께 고하는 것이니.....

(테이프가 끊어지면 피가 나오. 생채기도 머지않아 완치 될 줄 믿소. 굿바이.)

감정은 어떤 포즈.[그 포지의 소(素)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닌지 나도 모르겠소.] 그 포즈가 부동 자세에까지 고도화 할 때 감정은 딱 공급을 정지함네다.

나는 내 비범한 발육을 회고하여 세상을 보는 안목을 규정하였소.

여왕봉(女王蜂)과 미망인 - 세상의 하고 많은 여인이 본질적으로 이미 미망인 아닌 이가 있으리까? 아니! 여인의 전부가 그 일상에 있어서 개

개 ‘미망인’이라는 내 논리가 뜻밖에도 여성에 대한 모독이 되오? 굿바이.

- ① 화자는 자신을 ‘정신분열자’라고 조롱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 ② 일상어의 익숙한 표현을 사용하여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비논리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 ③ 자신을 ‘박제가 되어 버린 천재’라고 하면서 이야기 속 ‘나’의 입장을 토로하고 있다.
- ④ 독자를 상정하는 등 엄격한 전략을 사용하여 프롤로그를 서술하고 있다.

정답 ② 지문은 이상의 ‘날개’이다.

해설 → 이론 강의 7강 8분대 이후~18분대에서
도 중간중간 언급하면서 올해 로또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상의 본명은 김해경!...
‘이상?...미친놈(자의식의 분열)!!...
이러면서 말한 것 / 의식의 흐름, 자
동기술법, 다다이즘...이렇게 말한
것만 있어도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
을 듯....^^

문 10. 다음 글을 읽고 난 후의 반응으로 적절
한 것은?

텔레비전은 어른이나 아이 모두 함께 보는 매
체이다. 더구나 텔레비전을 보고 이해하는 데는
인쇄문화처럼 어려운 문제 해독력이나 추상력이
필요없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에게서보다 텔
레비전이나 컴퓨터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
이 때문에 오늘날의 어린이나 젊은이들에게서
어른에 대한 외포나 존경을 찾는 것은 쉽지 않
은 일이다. 전통적인 역할과 행동을 기대하는
어른들이 어린이나 젊은이의 불손, 거만, 경망,
무분별한 ‘반사회적’행동에 대해 불평하게 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 ① 전자미디어가 정보 사회를 선도해 나가는
군.
- ② 저자미디어가 인간을 쓸데없는 노동에서

해방시켜 주는군.

- ③ 전자미디어는 사회 체제에 크고 작은 변화
를 유발하는군.
- ④ 전자미디어는 인간이 자신이 필요성을 충
족시키기 위해서 발명하였군.

정답 ③

해설 ‘정보사회와 인간생활(설명문)’ 인
데.... ‘비문학 지문읽기’ 편에 옮겨
져 있다.

문 11. ‘섬진강’의 이미지로 볼 수 없는 것
은?

가문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퍼 가도 퍼 가도 전라도 실핏줄 같은
개울물들이 끊기지 않고 모여 흐르며
해 저물면 저무는 강변에
쌀밥 같은 토끼풀꽃,
숫불 같은 자운영 꽃 머리에 이어 주며
지도에도 없는 동네 강변
식물도감에도 없는 풀에
어둠을 끌어다 죽이며
그을린 이마 흰하게
꽃등도 달아준다
흐르다 흐르다 목메이면
영산강으로 가는 물줄기를 불러
빠 으스스리게 그리워 얼싸안고
지리산 뚱뚱한 허리를 감고 돌아가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섬진강 물이 어디 몇 높이가 달려들어
퍼낸다고 마를 강물이더냐고,
지리사이 저문 강물에 얼굴을 씻고
일어서서 꺾꺾 웃으며
무등산을 보며 그렇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노을 뜬 무등산이 그렇다고 흰한 이마 끄덕이는
고갯길을 바라보며
저무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어디 몇몇 애비없는 후레자식들이
퍼간다고 마를 강물인가를.

- 김용택, ‘섬진강’ -

- ① 부드럽게 포용력 있는 존재
- ② 주변의 사물과 조화로운 존재
- ③ 한과 설움으로 억눌린 존재

④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존재

정답 ③

해설 ※ 이 작품의 ‘섬진강’이 지니는 의미의 속성과 가장 유

사한 것을 고르면?

<보기>

(㉠) 산에 / 산에 / 피는 꽃은 / 저만치 혼자 피어 있네.

- 김소월, <산유화>

(㉡) 나 돌아가는 날 / 너는 와서 살아라 두고 가진 못할 / 차마 소중한 사람

- 신동엽, <너에게>

(㉢)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 듯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 신석정, <들길에 서서>

(㉣)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고 / 두 쪽으로 깨뜨려져도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 유치환, <바위>

(㉤) 풀이 눕는다. /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 김수영, <풀>

→ ‘섬진강’은 끈질기고 건강한 민중의 생명력은 상징한다. : (㉤) 이성부의 ‘벼’라는 작품의 성격과 거의 비슷하다.

문 1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銀은 ㄹ톤 무지개, 玉옥은 ㄹ톤 龍룡의 초리, 첫돌며 쫓는 소리 十십리리의 즈자시니, 들을 제는 우레러니 보니는 눈이로다.

- 정철, ‘관동별곡’ 중에서 -

- ① 시각인상과 청각인상을 함께 사용한 복합 감각적 표현이다.
- ② 자연물에 의탁하여 애끓는 연군지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 ③ 비유법과 대구법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자연의 위용을 화려하게 표현했다.

④ 기발한 조어(造語)와 형상적 문체로 금강산 폭포수를 묘사했다.

정답 ②

해설 이 문제는 서너 차례 출제되었다.

처음에는 수사법 문제로, 두 번째는 이 대목이 묘사하는 원관념(만폭동 ‘폭포’)은?,

그리고, 공감각이냐, 아니냐(복합감각)?의 문제로.... 그런데 이번에는 이 세 문제를 복합적으로 설명하는 문제로 출제했다.... 따라서 기출문제의 분석은 분명 필요한 자세이다. (10강 25분~30분대에서 공감각을 언급하는 대목)

문 13. 다음 글이 설명하는 언어의 성격이 가장 약하게 반영된 것은?

말소리와 그것이 싣고 있는 뜻 사이의 관계는 자의적(혹은 임의적)이다. 밤하늘에 떠서 세상을 비춰 주는 물체를 반드시 [달]이라고 불러야 할 필연적인 인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필연적인 인유가 있다면 어떤 언어에서나 [달]이라고 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영어에서는 [문]이라고 하고 스페인어에서는 [루나], 헝가리에서는 [홀드], 일본어에서는 [쓰키]라고 한다. 그것은 마치 붉은 교통 신호등이 정지를 표시하는 것과 같다. 붉은 색이 정지를 뜻해야 할 필연적인 인유는 없다. 푸른색을 정지, 붉은색을 진행 표시로 정해도 상관없다. 그것은 약속으로 통용되기만 하면 된다. 교통신호는 색깔로 진행이나 정지를 표시하지만, 언어는 말소리로 어떤 뜻을 전달하는 것이다. 말소리는 그릇과 같은 것이요, 뜻은 거기에 담긴 내용이다. 그래서 언어는 자의적인 음성기호의 체계라고 한다. 청각장애인들의 수화(手話)는 손짓으로 뜻을 전하며 밤중에 항해하는 배들은 불빛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그러나 언어는 말소리로 뜻을 전달하며, 말소리와 뜻 사이의 관계는 필연적이지 않고 자의적이다.

- ① ‘호랑이’와 ‘범’이라는 동의어가 존재한다.

- ② ‘까닭’을 뜻하는 중세어 ‘전촉’가 후대에 와서 사라졌다.
- ③ 한국 사람들은 수탉의 울음소리를 ‘꼬끼오’라고 한다.
- ④ ‘부추’를 어떤 방언에서는 ‘술’이라고 한다.

정답 ③

해설 이 지문은 ‘언어의 자의성’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 하늬국어1 비문학편 p.6에 아래의 이야기가 있다 29강 9분30초 대~)

언어의 자의적인 증거

- ① 지역마다 각 지시대상을 표현하는 음성 형식이 모두 다르다. (④)
- 예 사람 : [ren], [hito], [mæn]
- ② 동음이의어(배-梨, 船, 腹), 이음동이의어(책방-서점)가 있다. (①)
- ③ 언어의 역사성 중 성장어에 해당하는 어휘도 자의성을 설명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 의미상의 변화는 물론, 형태상의 변화를 보이는 것도 자의성의 근거이다. (②)
- ㉠ 형태상 : ㅁ술 > 가을, ㅁ술 > 마을
- ㉡ 의미상 : 어엿쁘다(가엸다-예쁘다)

문 14. 다음 글이 제시한 유형에 해당하는 오류가 아닌 것은?

“바람을 피다.”는 잘못된 말이다. 왜냐하면 ‘피다’는 자동사이므로 목적어와 함께 올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동사 ‘피우다’를 사용하여 “바람을 피우다”와 같이 써야 한다. 이처럼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분을 하지 못해 오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니 글을 쓸 때는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 ① 밤을 새지 마고 일찍 가라.
- ② 담배를 필 사람은 밖으로 나가세요.
- ③ 아침에 서두르다가 면도날에 턱이 났다.
- ④ 소풍 전날이 되면 항상 마음이 설레었다.

정답 ④

해설 ①, ②, ③은 모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인데... ④는 그렇지 못하다.

또한, ‘설레다’는 기본형이 ‘설레이다’가 아니므로 ‘설레었다’라고 쓰면 틀리고 ‘설레었다’라고 쓰야 하는 것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엉뚱한 힌트가 될 수 있겠다.

아무튼, 이 단어는 / ‘개다’ (‘개이다’ 아님), 들르다 (‘들리다’ 아님)...과 같은 동사의 기본형과 활용형 때문에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많다고 굉장히 강조했던 것을 떠올렸다면 아마도 이 문제는 쉬웠으리라!!

문 15. 표준어로만 이루어진 문장은?

- ① 시험을 치르고 나니 허탈감이 엄습했다.
- ② 이 딸기 통털어서 열맴니까?
- ③ 사소한 일로 티격태격하다가 결국 헤어졌다.
- ④ 자라 보고 놀랜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정답 ①

해설 이 문제 역시 기본형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다.

- ① ‘치르다’ - 치르고/치르니/치러... (‘치뤄’가 아님)
- ② 통털어서 ③ 티격태격
- ④ 기본형이 ‘놀라다’이다.

문 16.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우리는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면서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법을 어긴 자가 법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나를 처벌하려면 ㉠법 대로 해라.”라는 식으로 도리어 큰소리치기도 한다. 나이가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삼촌뻘 되는 상대에게 “나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어.”라며 삿대질을 하기도 한다. 무릇 사람이란 본 대로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뿐인 자기 존엄을 스스로 내팽개치는 사람이 있으니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①

해설 ① 명사에 조사(‘대로’는 조사)는 붙여 쓴다.

- ② ‘만큼’은 의존명사
- ③ 하나(수사)+‘뿐’(보조사)+인(서술격조사)
- ④ ‘수’가 의존명사.

→ 64강 27분대/65강 1번 문제..9분대의 강의에서 답을 확인할 수 있다.

문 17. 밑줄 친 부분이 어법에 맞는 것은?

- ① 요즘 머리가 벗겨져서 고민이야.
- ② 신발이 꺾 끼어서 잘 벗어지지 않는다.
- ③ 인형의 머리를 빚어 주었다.
- ④ 이제 그만 분을 삭이고 내 말을 들어라.

정답 ③, ④

해설 →이 문제의 ‘가답안’은 원래 ④번이었는데... 의의제기로 ③, ④번 복수정답으로 처리되었다.

③의 ‘빚다’는 이것의 사동형 ‘빚기다/

빚기고/빚겨’...주었다라고 하는 게 보통인데 인터넷 사전에 ‘빚어 주었다’의 예문이 소개되어 있는 관계로 아마도 복수정답 처리가 된 것 같다.

문 18. 우리말의 높임법(혹은 존대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옳은 것은?

- ① 할아버지께서는 이빨이 참 좋습니다.
- ② 교수님은 두 살 된 따님이 계신다.
- ③ 선생님, 제 말씀 좀 들어 주십시오.
- ④ 이 책은 우리 선생님이 준 책이야.

정답 ③

해설 ① ‘치아’가...로

② 따님이 있으시다...로

④ 우리 선생님께서 주신 책이야...로

→이 문제는 이론 강의 66강 28분대~44분 25초대에서 답의 예문을 그대로 말해 주었다.^^

19. 밑줄 친 단어의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은 안경을 쓴 형사의 본때는 든든히 믿고 있는 어떤 힘을 가리키고 있는 게 분명했다.
- ② 알뜰한 양철 난로가 금세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방 안이 훈훈해졌다.
- ③ 나는 이 집에 눈곱만큼의 미련도 없다.
- ④ 요즘 청소년들도 떡볶기를 즐겨 먹는 것은 마찬가지다.

정답 ④

해설 로마자 표기할 때도 ‘떡볶이’의 예문을 들어 설명하기도 했었는데... 아니 내가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음식은 ‘떡볶이’이고 그것을 볶는 행위는 ‘떡볶기’이다.

그리고 이 문제의 ②번 ‘금세’는 내가 참 많이 강조했었다.

금세=지금 막/시방/고대와 같은 뜻이고, ‘금 새’는 어떤 물건의 값이라고....

문 20. 밑줄 친 표현의 발음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하늘이 맑게[말깨] 개었다.
- ② 끝을[꼬출] 맞추어서 접어야 종이가 반듯하지.
- ③ 주의[주이] 사항을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④ 아이가 내 발을 꼭 밟고[밥:꼬] 있다.

정답 ②

해설 [꼬틀]...음절의 끝소리 안에 있는 연음법칙이다.

만약 ‘끝이’ 였다면 [꼬치]로 발음될수 있었겠다 (‘구개음화’로)

→ 60강12분 36초 대, 41분 10초 대에 이 발음의 답을 맞힐 수 있는 설명이 있었다.